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내실화 과제

전 규 승 (한국개발연구원)

1. 序 : 문제의 제기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하여 범국가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이해력을 단순한 생활 편의수단이 아닌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교육이 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다.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 금융회사에서 개인이나 가계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는 점도 금융교육이 가계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금융소비자의 지식은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로 인한 개인파산 증가가 사회 문제화하면서 개별 경제주체의 금융 이해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져 왔다. 선진국 정부는 학교·민간단체·금융회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애교육 차원에서의 국민 개개인의 금융이해력 향상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금융이해력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금융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관점아래 금융교육을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독립 과목화하고, 교육내용을 실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부채 확산 정책에 기인한 서브 프라임 모지기론 사태가 개인 파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이 된 점을 계기로 금융 거래 기량 향상에 주안점을 둔 기존 금융교육에 관한 반성이 대두되고 있다.

OECD는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금융상품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금융 역량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고, 무지한 상황에서 내린 개개인의 부적절한 신용행위가 재앙에 가까운 금융위기 촉발의 토양이 된다는 관점에서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하

여 정부당국 등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은 지난 10여 년간 경제 문제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확대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대중화되어 있으나 교육 목표 설정이나 교육 방식, 도구, 콘텐츠 등의 구체적 세부 추진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아 금융교육이 내용적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금융교육을 독립 교과가 아닌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루어 교수 학습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 시수도 적절히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 내용도 이론에 치우쳐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교수 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금융 여건과 가계 환경 변화

1) 금융 여건의 변화

금융 위험이 금융회사에서 가계 부문으로 급속히 이전됨에 따라 가계 건전성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신용 불량, 무계획적인 금융 투자 및 대출, 금융 피라미드·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은퇴 계층의 불완전 펀드 거래와 상조회사의 과다 광고로 인한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 거래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 민원 발생을 방지하게 되면 사후적 분쟁 해결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불성실 금융 거래로 인한 피해·분쟁의 다발과 약탈적 대출 성행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이해력의 향상은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여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부채 감소, 중산층의 원만한 노후 설계를 도와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한다.

2) 가계 환경의 변화

1인당 국민소득이 1953년의 67달러(1인당 GNP : 1975년 기준)에서 1997년의 2만450달러(1인당 GNI : 1990년 기준)로 55년 만에 300배 가까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대수명의 연장, 여성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자녀 수 감소, 디지털 사회 급진전 등 가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개개인의 소득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지만 최근 10여 년간 총저축률 중 개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2000년 평균 14.2%에서 2006년~2008년 평균 4.8%로, 개인순저축률은 1998년의 23.2%에서 2007년의 2.3%로 감소되었다. 압축 성장기에는 산업 자본 확충을 우선 과제로 하는 정부의 의지와 빈곤 탈출과 소득 증대를 바라는 개개인의 욕구가 뒷받침된 가운데 강력한 저축교육의 영향으로 성공적인 저축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저금리 사회가 도래하면서 저축에의 국민적

관심이 저하된 까닭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2배 늘어나는 동안 가계 부채는 4배 이상 증가(1인당 국민소득 만 불을 달성한 1995년의 가계부채율 72.7%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한 2007년에는 148%)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이자 지출이 22.5% 증가하는 등 부채의존형 금융생활이 확산되고 있다. 교통·통신비 및 문화 활동비, 노후 대비 자금 증대 등으로 가계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소비의 질적 기대 수준이 소득 증가 범위를 넘어섬에 따라 부족해진 소비재원을 대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계 부채는 소득이 높을 수록 부동산 구입 대금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나 빚 돌려막기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한사람이 신용카드를 4.1매 소지하고 있는 신용시대의 도래로 1990년 5.6%에 불과했던 민간소비 중 카드 결제 비중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2002년 45.7%까지 뛰어 올랐고 2007년 49.5%,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는 와중에도 2009년 2분기에는 51.7%를 점유하는 등 가계 지출을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현금 결제 시는 지난 달 소득으로 이 달 소비 지출을 충당하나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다음 달 소득으로 이 달 소비 지출을 충당하게 되어 가계 생활의 부채 의존 경향이 심화된다. 그 결과 20세 이상 국민 3천 500만 명의 23%에 해당되는 813만 명이 '신용 주의 등급' 또는 '신용 위험 등급'에 있고, 그 중 1/4 이상인 217만 명이 금융대출은 물론 창업과 취업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저축 유인 정책보다는 미소금융,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 상환의 실효성을 구 체화하지 않은 서민대상 소액 대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채의존형 금융생활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가구의 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소득 상위 20%는 월평균 207만 원씩 흑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하위 20%의 경우에는 월평균 38만 원씩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가 급진전되고 있다. 향후로도 금융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급변기의 위험 대비 실패로 인한 소득 감소 계층 증가
- 청년 실업, 불안전 고용으로 인한 미자립 청년 계층 증가
- 이혼율 증대에 따른 저소득 모자 가족 증가
- 결혼 이민, 탈북 등으로 인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증가
- 노후대비가 미흡한 은퇴 이후 연령층 증가
- 자립 의지를 가진 저소득 장애인 가구 증가

또한 각종 채무 조정, 농가 부채 탕감 등 채무 불이행에 대한 관용적 정책 기저로 소외계층의 채무 상환 의식이 희박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등 사회 일각에서는 불법 추심으로 인한 사금융 이용자의 극단적 피해 사례를 지나치게 부각하여 불량 채무에 면죄부를 주는 등 도덕적 해이의 확산을 부추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국내외 금융교육 흐름

1) 금융교육 발전과정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이란 「금융에 관한 지식, 기량, 태도」의 함양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금융교육은 돈의 관리 방법을 다룬다는 관점에서

- 금융이해력교육(financial literacy education),
- 금융소비자교육(financial consumer education),
- 금전관리교육(money management education),
- 개인재무관리교육(personal financial education)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목적과 대상에 따른 하부구조로서

- 소비자축교육(consumption and saving education),
- 신용교육(credit education)
- 투자자교육(investment education)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교육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정도에 따라 직업, 소비·저축, 금전관리 교육 단계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주안점으로 하는 노동, 기업가, 납세자, 경제윤리 교육 단계를 거쳐,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관심을 두는 개인재무관리, 신용, 투자자, 진로, 창업, 환경 교육의 순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선진 각 국에서도 금융교육은 과거 경제교육 또는 소비자교육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독립 영역으로 세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생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저축보다는 수익성 높은 금융 투자 중심의 자산 관리 선호로 금융 위험의 가계 이전이 심화되면서 이론보다는 실질적 금융생활 기량과 태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금융교육의 내용이나 영역에 관한 국가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채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도덕교육 측면의 접근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1〉 금융교육 구성 요소

구 분		내 용
지식적 측면	금융 지식의 이해 (Financial Knowledge & Understanding)	금융산업의 기능과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이해하고 개개인의 여건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
기량적 측면	금융생활 기량과 활용가능성 (Financial Skills & Competence)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투자 기회를 포착 실행할 수 있는 기량
태도적 측면	금융 책임성 (Financial Responsibility)	금융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결과를 이해하고,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태도

2) 선진 각국의 금융교육 경험

(1) 미국의 경우

미국은 1990년대 이후 금융상품의 복잡화,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노후대비 부담 증가 등으로 개인재무관리를 중심으로 금융교육에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특히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일련의 조사 이후 청소년 금융이해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의 IT버블을 겪은 이후에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금융 감독 당국의 적극적 지원 아래 대학과 종교기관, 금융회사의 실용적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와 학교, 시민사회 간의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었고, 청소년금융교육법 (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6)에 의해 점프스타트, 전국금융교육기구 등 금융교육 전담 민간 기구에 정부가 5년간 (2007-2011년) 매년 1억 달러씩 지원하고 있다. 재무부, 금융감독기관 등 20개 연방 기구는 범정부 차원의 금융교육위원회(FLEC : Financial Literacy & Education Commission, 2004)를 설립하여, 청소년이 사회 진출을 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개인재무관리 기량을 습득하도록, 금융 이론 등 학문적 개념에 대한 학습암기보다는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량을 중심으로 금융의 기초 개념에서부터 생활 설계, 자산 관리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각 급 학교는 주 교육위원회의 교육 관련 법규와 교육 기준에 따라 주 교육부가 개발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 ‘소비자교육’, ‘개인재무관리’ 등 주마다 상이한 과목의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점프스타트의 「개인재무관리 국가 표준」(2002년)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 개인 신용등급 유지, 학자금 대출·모기지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재무관리 과목을 고교 졸업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주도 2004년의 7개에서 2007년에는 14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된 학교 은행(School Branch)을 통해 수업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저축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저축은 재미있다(Saving is Fun!)’는 슬로건 아래 예금 스티커를 제공하는 등 저축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고 있다. 각 지역 은행들이 학교은행 운영에 필요한 실무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실제 운영을 맡아, 은행 시스템 및 예금상품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스쿨뱅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4월 중 하루는 ‘저축의 날’로 지정하여 은행 직원이 인근 학교를 방문, 저축의 중요성, 은행 상품 및 은행 이용 방법 등을 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국의 금융교육은 공교육화에 관한 공감대 조성, 법제화를 통한 교육의 구심점 형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국가적 붐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개개인의 금융생활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독일과 일본이 저축과 절약을 생활의 기반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룬 것과는 달리 미국은 최근 20여 년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조

달은 수입에 의존하고 필요 자금은 금융산업을 통해 버는 기형적 구조가 진행된 결과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활동이 만연되고 있다.

<표 2> 미국 점프스타트의 개인재무관리 국가 표준

1. 소득	2. 자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의 원천 ■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기업가정신 ■ 조세와 정부 서비스 ■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 사회보장과 노인 의료혜택 ■ 사업주 제공의 저축 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와 욕구 ■ 금융 의사결정 ■ 예산 ■ 금융 책임 ■ 보험, 위험 관리 ■ 금융 관계 정보원 ■ 개인 금융 플랜 ■ 유연장 등의 법적 서류
3. 지출과 신용	4. 저축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쇼핑 ■ 기회비용 ■ 지불 방법 ■ 소비자 정보 ■ 소비자의 불만 신청 절차 ■ 신용카드의 비용과 기록 ■ 파산을 포함한 신용 문제 ■ 소비자신용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과 투자를 하는 이유 ■ 저축과 투자 상품 ■ 위험, 수익, 유동성 ■ 복리 증가와 화폐의 시간 가치 ■ 72의 법칙과 비용 평균법 ■ 포트폴리오 ■ 계획서와 정보원 ■ 금융시장 규제 ■ 사업주 제공의 저축 플랜

또한 금융 주도 경제시스템을 맹신한 결과 청교도 정신으로 대변되던 건국 초창기와는 달리 제도적이고 관습적인 국민생활 행태가 저축이나 절약으로부터, 대출이나 금융 투자 기량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 및 금융상품의 복잡화로 정보 해득에 장벽이 쌓인 결과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금융상품 판매자, 모기지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등 판매 대리인의 금융 조언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자가 적은 저축대신 부동산, 주식, 펀드 투자가 선호되면서 개인 금융생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 구조가 만연되어, 모기기 론이나 신용 소비와 같은 빚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금융생활에 수반되는 책임감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긴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기에 이르렀고, 불량 채무와 개인 파산 급증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대출자, 금융회사, 감독 당국, 전문가 집단의 총체적 모럴 헤저드가 빚어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사태를 계기로 금융거래 기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금융교육 접근 방식에 대한 반성론이 대두되고 금융 선택의 결과에 관한 태도, 의지 등 금융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 영국의 경험

영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에 이어 개인 파산이 급증하면서 금융이해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을 계기로 금융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수립하고, 민관 네트워크로서 금융감독청(FSA), 교육부, 재무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금융교육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를 설치하여 국민 각층을 대상으로 금융 정보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008년 7월에는 재무부와 FSA가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 기부금 및 FSA 분담금 등으로 구성된 매년 3,500만~4,000만 파운드의 금융교육 지원 자금 중 대부분을 학교 금융교육 강화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학교 금융교육의 핵심 내용은 금융감독청이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있다. 금융감독청은 이론이나 용어 중심이 아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나 활동 중심으로 금융교재를 편찬하고, 각 장 별로 습득 가능한 교육 목표와 정규 교과과정(수학, 일반사회, 윤리 등)의 교육 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Young People and Money”등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융이해력 조사를 하는 한편 1996년에는 금융협회,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학교 금융교육 전담기구인 금융교육연합회(Pfeg: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를 설립하였다. ‘피펙’은 학교 금융교육 내용 표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수준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Pfeg의 학교 금융교육 내용 표준

핵심개념	주요내용	5-7세 대상	8-11세 대상
금융지식 (Financial Understanding)	돈의 개념과 역할	동전과 지폐 세계 각국의 동전과 지폐 물물교환과 화폐의 발달	수표, 신용카드 등 화폐형태 신용의 개념
	돈의 원천	용돈, 일을 통한 소득 고정수입과 변동수입	직업의 세계, 연금의 개념 노후대비 필요성
	지출	사고 싶은 물건 어른들의 지출 이해	가계 지출 세금의 필요성 및 용도
금융 활용능력 (Financial Competence)	돈 관리	돈 보관 방법 돈 관리를 위한 기록의 필요성	은행의 필요성 재무관리 기록의 중요성
	소비와 예산	지불의 의미 소비방법	저축의 필요성, 저축방법 예산수립
	위험과 수익	돈 분실 또는 도난의 결과	이자 개념, 대출 보험의 필요성
금융활동의 책임 (Financial Responsibility)	생활 속의 선택	돈의 가치, 소비에 따른 만족 기회비용과 선택 최적의 소비의사 결정	필요와 욕구의 구분 불량채무와 우량채무
	금융의 의미	돈의 과다에 따른 결과 분배의 중요성	금융 의사결정과 윤리 자발적 기부

특히 수학 교과서에 금융과 연관된 문제를 수록하는 등 핵심 과목에 금융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는 통합 교육을 추진하고, 우수 교재에 ‘피펙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교재 선택을 유도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급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금융회사는 각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은행 지원, 강사 파견 등으로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National Westminster Bank는 은행 직원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업무 기초, 신용카드, 직업 체험 등 10여 개의 강좌를 강의하는 Face 2 Face with Financ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국 전역의 45%에 달하는 중·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HSBC는 영국 전역의 650여 개의 중학교에 학생과 자원봉사 학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은행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Royal Bank of Scotland 역시 Face 2 Face with Financ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700여 학교 75만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교육하는 한편, 학교 내 가상은행을 개설하여 은행업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일본의 금융교육

일본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금융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지정하고 사회, 실과, 도덕 과목을 통해 금융홍보중앙위원회가 수립한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 추진지침’에 의해 초·중학교는 금전교육, 고등학교는 금융·경제의 전반적 내용 중심의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학교의 구체적인 수업 운영은 학습지도 요령을 중심으로 개별 학교장이 정한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금융홍보 위원회는 「금융홍보상담위원」으로 등록된 500명의 금융관련 전문 인력을 각 급 학교에 금융교육 전문 강사로 파견하여 학교 금융교육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업시수 부족과 이론 중심의 교육,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학교 금융교육이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 호주의 금융교육

호주 정부는 개인 파산 급증이 금융교육 결핍에서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 것을 계기로 2005년 「국가금융이해력 체계」(National Financial Literacy Framework)를 설정하여 유치원부터 10년간의 학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내용을 체계화하고 있다. 국가금융이해력 체계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립, 금융교재 편찬 및 평가, 교사 수업 지도의 기준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 및 교육단체에 의해 설립된 금융교육재단(FLF: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은 재무부의 예산 지원으로 교재 편찬, 교사 연수 등 학교 금융교육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금전 관리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금융이해력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 감독기구인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교육재단의 사업 방향을 자문하고, 외국의 금융교육 사례를 참고로 학교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금융투자·전자상거래·보험·분쟁조정절차·소비자주권·신용·퇴직 후 생활설계·노령퇴직연금 등 교육 주제의 우선순위 결정, 인터넷·방송매체·인쇄물 등을 통한 금융 정보 제공 등 정부 금융교육 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5) 뉴질랜드의 금융교육

뉴질랜드는 2001년부터 국가 퇴직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가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 개개인의 금융 복지 달성을 위한 자료 제공 및 4년 주기의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교사단체 등의 후원으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설립된 민간 청소년 교육 단체인 뉴질랜드 기업가 신탁기금(Enterprise New Zealand Trust)은 다음과 같은 10대 금융교육 핵심 원리를 제시하고, 학교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10대 금융교육 핵심 원리>

- ① 저축, 소비, 신용관리 등 모든 금융문제의 최종책임은 개인에 귀속
- ② 개인은 성향, 가치관, 재산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금융문제에 다양하게 반응
- ③ 금융계획 수립에는 장단기 기간 구분, 적절한 금융지식, 계획달성 의지가 필수적
- ④ 인생의 목표와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선택이 금융계획에 영향
- ⑤ 금융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영향
- ⑥ 현재의 금융행위가 미래의 소득, 재산, 복지에 영향
- ⑦ 소비와 저축간의 상호관계가 금융 복지를 결정
- ⑧ 개개인의 상황과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금융 선택 결과 가변
- ⑨ 금융 선택의 결과는 법률에 좌우
- ⑩ 금융위험은 금융선택 결과의 일부로서 이해, 관리의 대상

(6) OECD의 권고

2009년 들어 OECD는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국 정부가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금융교육을 위한 장기 전략과 실행 계획 수립 및 이를 보증하기 위한 예산 지원, 학교 금융교육 의무화, 신용 보유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광고·캠페인,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금융 소외 계층 대상의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주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금융 소비 의사 결정 기회(핸드폰 요금제 선택, 대학 등록금 관련 금융 문제 등)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교육적 대처가 부족하며, 교육과정의 압박, 교사들의 자신감과 능력 부족, 교수 학습 방법 미흡 등으로 학교 금융교육이 효과적인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 민관기관이 객관화 되지 않은 금융교육을 의견 조율 없이 제각각 실시하고 있어 교육 내용의 혼란과 무분별한 정보 전달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관점 아래, 금융교육의 내용에 관한 국가 표준을 설정하고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에 의해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국내 금융교육 동향

우리나라 역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대중화되고 있으나 구체적 대응전략은 부족한 실정이다. 압축 성장 과정에는 정부 주도 하에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소비·저축교육이 추진되어 성공적 결실을 맺었으나, 저금리 사회가 진전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면서 저축에의 관심이 소홀해 지고 채테크 기량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되어 왔다. 외환 위기 이후 금융 부문의 급격한 구조 조정을 겪으며 정책 홍보 차원에서의 금융정책 해설과 건전한 가계 운영을 위한 금전관리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반성과 저금리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용교육, 투자자교육 등으로 교육 영역이 확대되어 왔으나 금융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만한 교육의 내실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학교와 사회, 가정의 역할 보완, 또는 청소년과 성인 교육의 연계, 미래 사회의 변화 등에 대비한 교육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육 컨트롤 타워 부재, 교육 리더십 부족 등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대응도 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교육의 당위성 논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관한 컨센서스가 미흡하여 교육 방식이나 내용이 교육 수요자의 이해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교수 학습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은 대부분 우리의 경제환경이나 가계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서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현상 진단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내용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학교 금융교육 실태

8.15 광복 직후 미 군정청 학무국에서 교과서 편찬 기준으로 제정한 교수요목과 정부 수립 이후 개정된 1955년의 제1차 교육과정 이래 금융은 경제부문에 포함된 범교과 차원의 학습주제로 규정되어 왔다. 1987년의 5차 교육과정 개정과 1992년의 6차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 기술가정(실과) 및 도덕 과목에 지출 관리, 금융기관 이용 등 실용적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을 줄 만한 내용 개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2차 부분 개정에서는 초등학교 실과 과목과 중학교 사회 과목에 금융 관련 학습 시수를 부분적으로 확대하였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정으로서의 경제과목에 금융생활과 관련된 단원이 포함하기로 하였으나, 학교 금융교육은 사회교육, 소비자교육, 도덕교육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에서의 현실적인 교육 수요와의 격차는 금융 캠프 등 사교육 시장 활성화의 빌미를 주고 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학습과정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사회과, 도덕과, 실과(기술·가정)의 하부 구성요소로서 금융교육을 추진하여 학

습주제가 분산되어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도덕으로 이어지는 바른 생활과 사회·과학 통합과목인 슬기로운 생활에서 물자 아껴 쓰기와 물건 사기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서의 금전 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사회와 실과에서 용돈 관리와 은행 이용 등 금융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회 과목에서 경제 문제의 일환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도덕, 기술·가정 과목은 개인재무관리 기초 내용과 금융생활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선택중심교육과정(고등학교 2, 3학년) 인문계의 경우 금융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제과목의 선택 비율이 25.4%에 불과하며, 금융생활 또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활경제 및 가정과학 과목의 선택 비율은 남학생이 14%, 여학생이 35%로 금융과 관련된 학습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표 4〉 현행 교과서 금융교육 내용 체계(2009년 현재)

학교	학년	과 목	내 용
초등학교	1	바른생활	• 여럿이 쓰는 물건 아껴 쓰기
	2	바른생활	• 아껴 쓰는 생활(용돈,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구분, 절약)
		슬기로운 생활	• 가게 놀이(시장, 유통, 돈, 매매)
	3	도덕	물건 아끼기(근검절약)
	4	사회과탐구	• 소득, 지출의 의미 및 관리(가계부) • 금융기관의 역할, 저축의 목적, 예금의 종류와 필요성 • 합리적 소비 및 신용 관리
	5	실과	• 용돈 관리(용돈 계획, 용돈기입장, 금융기관 이용하기)
		도덕	• 절제하는 생활, 공익과 사익의 조화
	6	실과	• 지출 및 구매 계획(용돈기입장)
중학교	1	기술·가정	• 구매 의사결정
	2	사회	• 휴면 예금
		도덕	• 근검 절약, 지출 계획 세우기
	3	사회	• 화폐의 변천과 기능, 저축 • 물물교환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고등학교	1	사 회	• 저축, 화폐 • 금융상품, 신용불량
		기술·가정	• 소비문화 • 생활설계(예산, 저축, 투자, 보험 등 자금관리)
	선택	경 제	• 소득, 저축, 자산, 이자율(신용카드 남용과 소비자 신용 위기, 가계 금융부채 급증, 가계의 저축 수단, 라이프사이클) • 금융정책(통화량, 공개시장 조작, 지급 준비율, 이자율 결정)
		생활경제	• 가계 계획과 저축(소득, 신용, 신용카드, 생활설계), 화폐가치 • 합리적인 투자와 자산관리(금융·실물자산 관리, 거래와 계약)
		법과 사회	• 보증 종류별로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가정과학	• 가계 예산과 지출, 금융기관 • 신용, 보험, 투자

교사의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과별 전담교사제가 아닌 학급별 담임교사제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양성 과정인 교육대학에서의 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재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전국 12개 교육대학 중 6개 대학이 경제원론 한 과목을 필수로, 나머지 6개 대학은 경제 관련 한 과목을 사회과학 영역의 8개 선택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고, 실과교육 관련 과목은 대부분 전공과정, 생활과학 관련 과목은 교양과정으로 지정하고 있어 금융교육을 위한 전문적 접근이 미흡하다. 중·고등학교 금융교육 담당교사 역시 전문성이 미흡하여 사회과는 물론 도덕, 기술·가정과 교사의 경우에도 양성 과정에서는 물론 재교육 과정에서도 금융교육에 관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의 경우 교과를 불문하고 수업 부담이 적은 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금융교육에 관한 전문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학교 금융교육은 담당 교사에게 수업 운영의 전적인 준비를 요구하고 있어 현장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교 사회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ICT 기법에 의한 온라인 학습 자료와 더불어 모둠 활동에 의한 역할극, 과제 발표 등 강의 중심 수업을 대체하려는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수업 활용을 위해서는 담당 교사에 의한 자료의 재조작이 필요하고,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표 5〉 주요 기관의 금융교육 지원 프로그램 현황

주관기관	프로그램 내용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금융교실 운영 및 교육 자료 개발 • 학교 방문교육, 중고교 교사 직무 연수 • 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전국 25개 초·중·고교)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제교실 운영 및 교육 자료 개발 • 학교 방문교육, 청소년 경제 캠프, 중고교 교사 직무 연수
투자자교육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투자교실 운영 및 교육 자료 개발 • 학교 방문교육, 중고교 교사 직무 연수, 증권 경시대회 개최
금융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오프라인 교육 자료 개발 • 학교 방문교육, 공부방 금융교실 운영, 청소년 금융 캠프

경제교육협의회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신용 관리, 금융·투자저축용돈 관리 등 실용적인 내용을 수업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중·고등학생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이 더 교육받고 싶어 하는 학습내용은 용돈 관리 방법과 필요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각각 24%, 중, 고등학생은 자산 관리 방법이 48.5%와 6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가정 금융교육의 수준에 대해서는 수 0.0%, 우 9.4%, 미 42.1%, 양 37.3%, 가 11.2%로 평가하는 등 스스로 교육역량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금융, 신용 등 실용 지식의 습득을 가장 중요한 경

제교육의 목표로서 인식하고, 초등학교 학부모는 용돈 관리,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용돈 관리와 자산 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각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이 제각각 학교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중복되거나, 엇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제환경의 변화와 국내외 흐름으로부터의 시사점

첫째, 선진 각 국 정부는 개인 과산 증가 등 가계 부채 관리 실패를 계기로 개개인의 금융이해력이 경제적 성패를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금융교육에 적극 개입하여 금융교육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민·관의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 민간단체, 금융회사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교육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선진 각 국은 금융교육을 의무화, 독립 과목화, 실용화하고 있다.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재를 편찬하고, 학생 스스로 흥미를 갖도록 유인하는 콘텐츠 및 실용적 교육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한편 핵심 과목에 금융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 교육 추진하고, 각 급 학교 교사를 위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 등 실무 전문가를 훈련하여 금융교육 전문 강사로 활용하고, 금융회사의 지원 아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학교은행 또는 학교 내 가상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금융 부문을 범교과 차원의 학습주제로 규정하여 학습 주제가 교과별로 분산됨에 따라 교육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일부 내용요소는 중복 편수되거나, 교과목 특성에 따라 기술 방향이 달라져 교수 학습에 혼란을 야기하고 실효성 있는 학습 기회 부족, 특히 신용 관리 및 보험, 노후대비 등 위기 관리 분야의 내용이 적절히 취급되지 않는 등 교육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물론 재교육 과정에서도 금융에 관한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학부모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교육 역량이 부족하다.

셋째, 선진 각 국은 무분별한 정보 전달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교육 체계로서의 교육 목표, 내용 표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소득의 원천, 저축과 투자, 포트폴리오, 부채와 신용 관리, 수익과 위험, 개인재무관리 등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되 기존의 금융거래 기량 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금융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결과에 관한 태도, 의지 등의 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표준적인 내용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금융교육의 내용과 수준에 혼선을 빚고, 교육 운영 주체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어 교육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넷째, 선진 각 국은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에 의해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우수 교재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다섯째, 선진 각 국은 국민 각 층의 금융이해력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금융교육의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이해력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1) 금융교육 지원기반 확충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가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하며, 사회 전체에 걸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교육 전반의 실태 조사 및 기초 통계 자료 확충¹⁾과 청소년 및 금융 소외계층 대상의 금융이해력 조사를 정례화 하여 금융교육 전략 수립과 이행 상황 점검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단체, 금융기관, 대학, 시민사회의 교육역량을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재 편찬, 교육 방법 개발 등 세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 대상 맞춤형 교수학습, 상담 중심 일대일 대면 교육, 전화 상담 창구 개설, 금융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전문화²⁾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동영상, 체험답·사례집 등 재미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금융정보를 다수의 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중 전파력이 강하고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매스컴 환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방송기자, PD·작가 등 교양, 오락 프로그램 담당 방송 제작진 대상의 워크숍·연수 기회 제공, 소재 지원, 공중파 방송 등의 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과 아울러 교육방송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생애 설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으로 주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2002년부터 통계청에서 ‘청소년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소비생활, 용돈, 금전관리 행동, 저축행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내용 결여.

2) 금융소외계층 청소년과 접촉이 빈번한 전국 시·군단위의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생활지도사,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방과 후 교실 지도 교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등을 통한 금융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담당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등 금융소외 계층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복지정책과 금융교육을 연계하여 미흡한 학교 금융교육을 보완할 필요.

2)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금융 문제의 실질적 해결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서 공통 과정으로서의 「금융 생활(가칭)」과목과 선택 과정으로서의 「경제·금융(가칭)」과목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체계를 현실화하고 수업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1안>

- 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일반사회」, 「기술·가정」, 「도덕」의 금융관련 내용을 묶어 단일 과목으로서의 「금융생활」과목(가칭) 신설.
- ②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 「생활과학」 등 다양한 과목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교육 내용과 「경제」, 「생활경제」를 묶어 「경제·금융」과목(가칭) 신설.

<제2안>

현재와 같이 금융 지식 부문은 일반사회(경제), 금융생활 기량 부문은 실과(기술·가정), 금융 관련 태도 부문은 도덕으로 나누되,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학교 금융교육 내용 체계에 의해 과목별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을 연계.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기술·가정, 도덕 등의 과목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 지식, 금융생활 기량(가계 지출, 재무 관리, 신용 관리, 금융 투자, 납세 포함), 금융 관련 태도 등의 교육내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교사를 중심으로 범 금융교과협의회를 구성하고 교과 관할을 둘러싼 학교 사회에서의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론 중심의 교수 학습 내용을 금융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를 갖고 금융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고,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 영역의 수업을 금융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통합교육 방안을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 단위에서 다양한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은행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 소액대출 전문기관인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기능을 보완하여, 산하에 제1, 2 금융권으로 구성된 학교은행 지원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개별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은행 모형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학생 및 자원 봉사 학부모가 학교은행을 운영하되, 미소금융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지역의 금융기관이 자매결연 방식으로 학교은행 운영 실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지도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기관에서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하고,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시행하되, 관심 있는 기관·단체가 각 급 학교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 전문 연수 과정을 공동 설치하고,

내용을 표준화하여 균질적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 이외의 각종 교사 직무연수에도 금융교육 관련 강좌를 포함하고 사이버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교육지도사 제도 시행 등으로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 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 수업을 추진하여 교사들의 부족한 지도 역량을 보완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금융교육 내용이 수능시험에 출제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 영역에서뿐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 함양을 위해서는 학교 급별로 학부모 금융 교실을 설치하고 특성화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을 함양하는 한편 학교와 가정 간의 교육 피드백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대상별 내용 표준화

국민 개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금융역량을 배양함으로써 국가적 금융 웰빙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학계, 전문가 집단, 교육계의 의견을 집약하여 국가 표준으로서의 교육목표, 내용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에 기초한 소비생활을 지양하고 욕구 통제와 저축 기반 소비생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거래 기량 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금융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결과에 관한 태도, 의지 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지향적 관점, 글로벌·디지털 차원에서 개개인의 금융생활 역량을 적극 함양하되, 생애 설계, 소득의 원천, 저축과 투자, 포트폴리오, 부채와 신용관리, 수익과 위험, 연금과 보험, 노후대비 등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4)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적 타당성 평가 및 금융이해력 조사

금융교육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의 내용적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우수교재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이 금융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내용의 평가·인증, 금융이해력 조사와 내용 표준화 실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싱크탱크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제교육협의회,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07.
-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금융교육 현황 및 시사점」, 2008.
- 천규승, “청소년 금융교육 이대로 좋은가?,” 『청소년금융교육 세미나』, YWCA, 2007.
- Canadian Policy Research Initiative, “Why financial capability matters,” Jun. 2005.
- JumpStart Coalition,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Second Edition),” 2002.
- OECD, “Financial Literacy and Consumer Protection: Overlooked Aspects of the Crisis,” OECD Recommendation on Good Practices on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Relating to Credit, June, 2009.
- World Bank,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services,” 2007.
- Chun, Qsyng, ‘Tasks to Substantiate Financial Education for the Adolescents in Korea’, “Financial Health for Next Generation,” *Financial Education Summit*, Nov. 2006.
- Katy Jacob, “Tools for survival: An analysis of financial literacy programs,” *Woodstock Institute*, Jan. 2000.